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 현황과 비전

김기호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1. 왜 녹색뉴딜인가

세계경제는 지금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이 급년 중 상당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과거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대규모 경기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대책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달리 환경과 지속가능성장을 강조하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소위 녹색뉴딜정책(Green New Deal)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녹색뉴딜은 '녹색(환경)'과 '뉴딜(일자리)'을 합성한 용어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녹색뉴딜에 주목하면서 우선 사업분야로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 등 5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 등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위기극복을 위해 '녹색뉴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2월 친환경 SOC 투자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도 2009년 1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100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녹색뉴딜 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프랑스는 친환경 SOC 및 에너지 절약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녹색사업육성에 초점을 맞춘 녹색뉴딜을 추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녹색 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투자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전략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후 2009년 1월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였다.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분야별로 중복되고 지향점이 불분명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경제 구현과 지구환경보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력 분야로는 친환경 SOC영역에서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이 있으며,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영역에는 대체수자원 및 중소기업 구축, 그린카/청정에너지, 자원재활용 확대이며, 친환경 및 녹색생활분야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그린홈/그린빌딩,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녹색뉴딜사업 전체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2009년~2012년까지 총 50조원 규모를 투입하여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표 1
9개 핵심사업과 기대효과

주력분야	9개 핵심사업	2009~12년간 투입 및 기대 효과
녹색SOC	4대강 살리기	총 18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28만개의 일자리 창출
	녹색 교통망 구축	총 11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6만개 일자리 창출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총 0.7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2만개 일자리 창출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대체수자원·중소담	총 2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3만개 일자리 창출
	그린카·청정에너지	총 2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
	자원재활용 확대	총 3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5만개 일자리 창출
	산림 바이오매스	총 3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23만개 일자리 창출
친환경·녹색생활	그린홈·그린빌딩	총 9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공간 조성	총 0.6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

자료 : 기획재정부 2009.1

표 2
 '2009~' 12년간
 핵심·연계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주력분야	재정소요			일자리		
	기반영	추가소요	소계	기반영	추가일자리	소계
핵심	32,223	36조원 규모	39조원 규모	6.3	63.0	69.3
연계	11,403	9조원 규모	11조원 규모	3.0	23.3	26.3
총계	43,626	45조원 규모	50조원 규모	9.3	86.3	95.6

자료 : 기획재정부 2009.1.

3.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특징

한국정부의 녹색뉴딜정책 특징을 분석해 보면,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하며, 환경보전과 상호 보완적인 사업으로 기존 사업들을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재편하는 특징을 보인다.

1)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업 추진

2009년부터 3년간 총 50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 재정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특히 2009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녹색뉴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녹색뉴딜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이 아니라 생활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노무자의 신규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른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녹색뉴딜사업은 대부분 건설 및 토목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무직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으로 노무자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녹색산업 성장에 따른 그린칼라로 인력이 전문화되면서 부가 산업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인 사업 추진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환경보전과 상충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자원 남용을 억제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사업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할 때, 환경을 무시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환경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녹색뉴딜사업은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성장 엔진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4) 기존 사업들을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재편성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성을 갖고 기존 사업들과 녹색뉴딜 사업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 SOC 사업과 녹색산업을 녹색뉴딜이라는 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경우 더 큰 시너지가 예상된다.

4.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지금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단체의 사업은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미확보와 각 자치단체별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금번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추진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지자체 자체지방비를 활용하여 신천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신설·증설, 낙동강변 생태공원조성, 도시하천 생태복원사업과 솔라시티사업, 첨단 의료복합단지조성, 메카트로닉스 및 바이오메스 관련 사업 등 친환경 복원사업과 녹색성장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추진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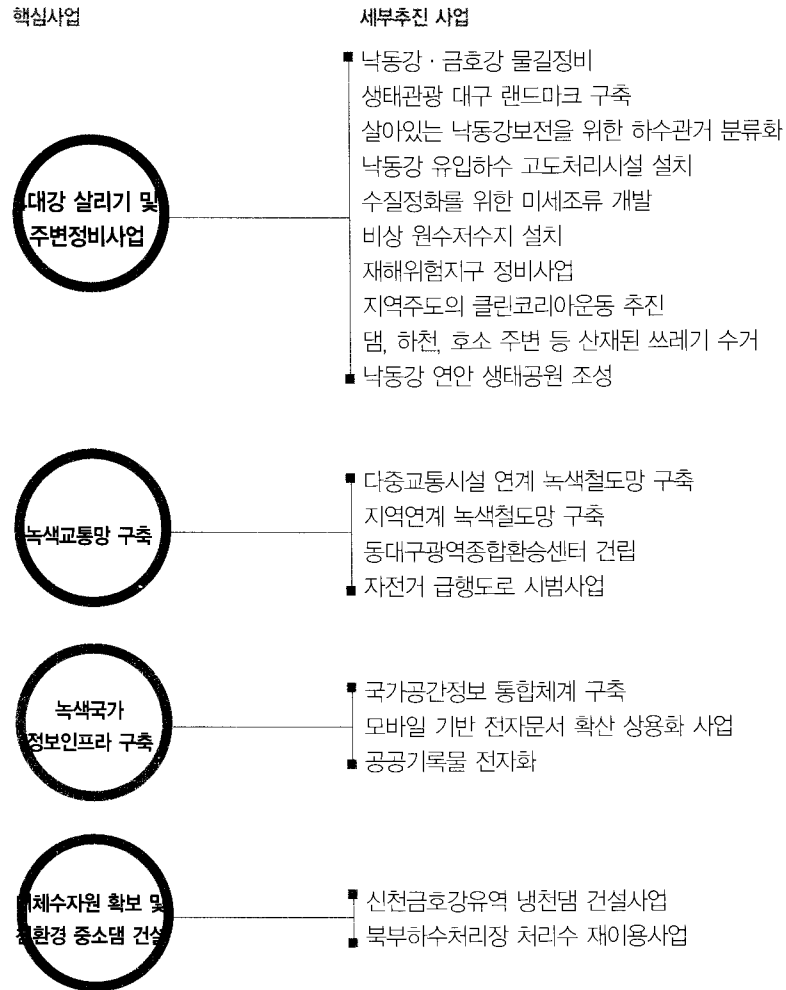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WEC) 유치를 통하여 에너지 선진국가, 에너지 시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Carbon Free 시범대회로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축의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1)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 개요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사업과 연계해 추진 가능한 13조5천억원 규모의 52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연계 철도망 구축 등 13개 사업(사업비 5조8천93억원)을 확대 추진하고, 낙동강·금호강 물길정비,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등 39개 사업(사업비 7조6073억원)을 신규로 발굴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낙동강·금호강 물길정비와 생태관광 대구 랜드마크 구축을 포함해 10개 사업,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으로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이 포함된다. 그 밖에 신천·금호강유역 냉천댐 건설사업,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 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팔공산권 문화기반 및 문화체험길 조성 등의 사업도 녹색뉴딜사업의 목록에 올라 있다. 또한 향후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을 통하여 2012년까지 약 135,000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 총괄



**그린카·형정에너지
보급**

- 압축공기를 이용한 발전 및 자동차기술개발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
- 목질성유소계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자동차 적용기술 개발
2011대회 대비 선수·미디어촌 및 경기장 주변 신재생에너지 보급
-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실증단지 조성

자원 재활용 확대

-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개발 및 산업화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 폐기물고형연료화(RDF)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 녹색 숲가꾸기 사업
- 산물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 산림 병해충방제
- 산림복원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 OLED 디지털조명기술 상용화 및 보급사업
-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
- 학교숲 가꾸기 사업
- 석면함유 텍스 교체사업
- 교실 LED램프 교체사업
- 공공부문 LED 조명등 교체사업
- IT기술을 이용한 Green Home 테스트베드 구축
- 그린홈 닥터 양성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 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달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
-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사업
- 폐사설물 활용 창작스튜디오 운영
- 예술 나눔 꿈터
-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u-산업단지 조성
- 도심 역사문화벨트 조성
- 대구 어뮤즈 힐(Amuse Hill) 앞산 조성
- 도시하천 생태복원사업
- 도심 1洞 1公園 조성
- 고속국도변 완충녹지 조성
- 공원유원지 조성
- 팔공산권 문화기반 및 문화체험길 조성

자료: 대구시청 기획조정실, 2009

2)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 추진현황

대구광역시 2009년 녹색뉴딜사업 중점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첫째, 낙동강·금호강 정비 등 '뉴딜 인 대구' 프로젝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전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 국가과학산업단지, 성서5차 첨단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금호강 물길정비 추진은 정부의 4대 강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계획('09~' 11년, 1,200억원), 금호강 생태하천 정비('09~' 11년, 1,500억원), 신천 생태하천 정비('07~' 15년, 720억원) 등 대구지역의 낙동강 수질개선, 홍수대책마련, 생태계복원, 친수공간조성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형 SOC사업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혁신도시건설('07~' 12년, 16,168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13,107억원), 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05~' 15년, 3,500억원) 등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유치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 에너지산업 중점 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이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인 저탄소정책의 지역적 실현을 도모하고자 카본프리 솔라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 시범단지('09~' 17년, 1조3천억원)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카본프리 솔라시티 타당성 조사 용역(5억원)' 실시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 통합실증단지 유치할 계획이다.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저감기술 공동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체계구축, 종합정보망 구축등의 카본프리 솔라시티 기본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과 탄소배출권거래소, 그린컨벤션센터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기반구축과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도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표 4
(뉴딜 인 대구) 프로젝트 추진

핵심사업	세부추진사업
낙동강·금호강 물길정비 추진 (3,420억원)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추진 금호강 생태하천 정비 신천 생태하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공공재정 조기집행 (1조5,647억원)	일자리 창출 2009년도 공공재정 조기집행 공공 발주공사 분리발주 시행 확대추진 혁신도시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대형SOC사업 추진 (6조2,453억원)	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 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지하철 1, 2호선 연장건설

표 5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핵심사업	세부추진사업
카본프리 솔라시티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종합기술 연계개발 컨소시엄 구성·운영 신뢰성 평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관리센터 구축·운영 에너지부품소재집적단지 조성 테크노폴리스에 연료전지 등 시범보급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지역에너지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기반구축(282억원)	수소스테이션 설치 탄소배출권거래소,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유치 추진 그린컨벤션센터 조성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온실가스 인벤토리」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운영
기후변화 모범도시 대구 브랜드화	저탄소 친환경대회 개최 기반 구축 조직위원회 구성 도시 마케팅 활성화 방안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추진 자전거타기 모범학교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지하철역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속도게 구입지원 등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카본프리 시범대회로 개최	
2013세계에너지총회 개최준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45억15백만원)	

자료: 대구시청 기획조정실, 2009

5.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의 향후과제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2009년 1월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발표에 따라 대구광역시도 핵심 뉴딜정책사업과 연계 가능한 녹색뉴딜사업을 제시하였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광역적 녹색뉴딜사업과 이를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색뉴딜사업 제시는 앞으로 녹색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은 Top-down식 정책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핵심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특성은 반영한 새로운 사업 도출은 국가에 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국가 핵심사업별 지원예산을 배정 받기 위해서 지역특수성 보다는 백화점식 사업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광역시도 9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국가 핵심

사업과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유도하였다. 이것은 사업의 성공성 보다는 예산 배정으로 중심으로 녹색뉴딜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2009년 역점추진시책으로 제시한 '뉴딜 인 대구' 프로젝트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프로젝트는 기존 대구시가 추진해온 핵심사업과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특수성을 잘 살린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 기존에 제시한 52사업 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는 성공적인 녹색뉴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구광역시 제시한 52개 사업 중 현실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개별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 및 평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지자체의 개별사업간의 진행과정을 협의 할 수 있는 컨트롤기관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구지역의 현안과제별 시급성 및 타 지자체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진행 우선순위를 선정 및 평가하여 정부시책 반영과 지자체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녹색뉴딜사업의 지역민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사안임으로 대구광역시 제시한 녹색뉴딜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별 일자리 창출방안 등 녹색뉴딜사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계성을 알리고 민간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편으로 녹색뉴딜사업 정책 설명회 및 시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도 녹색뉴딜사업을 신산업 발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기업이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단순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자체에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각종 현장 지식을 전수받거나 새로운 전문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경우 그린칼라로 육성가능하다. 또한 교육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완료 시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구광역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 2009. 1.
- 삼성경제연구소, 「녹색뉴딜사업의 再照明」,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 2
- 아젠다넷, 「녹색뉴딜사업 주요내용과 각계 반응」, 2009. 1
- 윤진호, 「'녹색뉴딜' 사업과 일자리 만들기: 평가와 과제」, 『녹색뉴딜,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인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09. 1. 14